

축 사

원불교 제3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대산종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깊은 뜻으로 축하합니다. 대산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뒤를 이어 30여년 동안 원불교가 오늘과 같은 체계와 면모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그 수승함은 종교계에 다각면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선대의 고귀의 뜻을 잇는데 소홀함이 없이 세계 일원화(一圓化)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안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습은 교단 내는 물론 이웃 종교에도 소중한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상생의 시대를 위한 해법 제시라는 것을 강조하셨으니, 이는 시대를 넘고 종교의 범주를 넘어 현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종과 종교에 구분없이 인류에게 누가 더 많은 유익함을 주었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력과 실천은, 종교 협력운동의 주춧돌을 놓은 중요한 단초이자 사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이라는 선구자적 제안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종교화합의 가치가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중한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교 평화와 협력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가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대산종사님의 숨은 공로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생명과 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책무는 더욱 커졌으며 상생과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 길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아픔 속에서 대산종사님의 덕화가 더욱 더 크게 와 닿는 것은 이웃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불교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크나큰 공적을 남기신 종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의 종교가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길로 매진해 나아가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2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승